

1위
ABC 공인 유류 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6월 18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손흥민, 토트넘과 장기계약 임박 2026년까지 주급 3억2000만원선

영국언론들 보도... "새 감독 부임하면 서명"
케인·은동벨레 등과 동급... 토트넘 최고액



손흥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의 재계약이 임박한 분위기다.

텔레그래프, 더 선 등 북수의 영국 매체들은 17일(한국시간) "손흥민이 조만간 재계약을 맺을 것이다. 파울로 폰세가 감독의 부임이 완료되는 대로 서명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최근 몇 주 동안 협상을 진행해왔고, 양측은 계약연장을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축구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하기로 결정했다. 선수와 구단이 재계약 합의에 도달한 상태"라며 긍정적 분위기를 전했다.

손흥민은 2020~2021시즌을 뜨겁게 보냈다. 정규리그에선 17골·10도움을 올리며 득점 랭킹 공동 4위에 올랐고,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와 리그컵, FA컵 등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는 22골·17도움을 기록했다. 특히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2시즌 연속 '10골·10도움' 클럽에 가입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잉글랜드프로축구선수협회(PFA)가 선정한 EPL '올해의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알립니다

스포츠 취재 경력기자 모집

스포츠동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미디어를 이끌어 나갈 스포츠 분야 취재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2008년 창간한 스포츠동아는 1등 스포츠신문으로 우뚝 섰습니다. 2018, 2019, 2020, 2021년 한국ABC협회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평가에서 스포츠신문 1위, 일간신문 8위로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포츠 발전과 함께 성장해 온 스포츠동아는 젊은 인재와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스포츠동아와 동행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부문 : 스포츠 취재(축구 농구 아마추어 스포츠 등) 경력기자 0명
- 지원 자격 :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언론 등 경력 3년 이하
- 전형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대선자 개별 통보)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 기사 5건 (hwp, doc 파일, PDF로 제출)
- 접수 기간 : 2021년 6월 14일(월)~25일(금)
- 접수 방법 : 이메일 ten06sy@donga.com
- 문의 : 스포츠동아 경영기획실 02-361-1608

“2년 전 3구 삼진 수모 도쿄서 설욕하겠다”

야구대표팀 핵심 이정후, 올림픽 한·일전 복수 다짐



“야마모토, 기다려!” 키움 이정후가 도쿄올림픽에서 일본을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년 전 3구 삼진의 굴욕을 안긴 야마모토 요시노부와 재대결도 바라보고 있다. 16일 고척 LG전 7회말 1타점 적시타를 때린 뒤 세리머니를 펼치고 있는 이정후.

고척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프리미어12 결승서 日 야마모토에 커브 포크볼 등 3개로 삼진 당해 “구종까지 기억...이번엔 이길 것” 日 에이스야마모토와 명승부 기대



“뽕혔는지 모르겠네요. 정말요?”

어느덧 4번째 성인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이정후(23·키움 히어로즈)는 한·일전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부터 달라졌다. ‘상대하고 싶은 투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투수는 솔직히 잘 모른다”고 답하면서도 “기억에 남는 투수는 있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정후가 어렴풋이 떠올린 일본 투수와 만남은 2년 전 이뤄졌다. 일본야구의 심장부인 도쿄돔, 그것도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전에서 마주했다. 그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



일본 에이스 야마모토

데,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의 투수였다. 나와 동갑이었던 건 기억이 난다. 이번에도 대표팀에 뽑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정후가 언급한 일본 투수는 오릭스 에이스인 우완 야마모토 요시노부(23)다. 올 시즌 12경기에서 6승5패, 평균자책점(BRA) 2.08로 퍼시픽리그 ERA 및 탈삼진(93개) 1위에 올라있는 투수다. 당연히 16일 발표된 일본대표팀 최종 엔트리에도 포함됐다.

이정후는 “결승전 마지막 타석에서 3구 삼진을 당했다. 구종도 정확하게 기억한다. 직구를 던지지 않고 커브와 포크볼만을 던졌다. 포크볼이 시속 140km가 넘었다”고 기억했다. 실제로 당시 야마모토는 8회 구원등판해 이닝 선두타자 이정후를 상대했다. 초구로 시속 115km 커브 이후 145km 포크볼, 142km 포크

볼을 잇달아 던져 이정후를 3구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정후는 “그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 나도, 그 선수도 그 때보다는 한 단계 더 성장했을 것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어떤 활약을 할지 궁금하다. 꼭 다시 한번 맞붙어보고 싶다. 그 때는 졌으니 이제는 이겨야 한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일본의 안방에서 열리는 올림픽, 여러모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이정후는 필승을 다짐했다. 그는 “일본이 유리하겠지만 그만큼 부담도 클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땀 때까 생각난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였지만,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가 우승했던 걸 온 친구들과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다”고 밝혔다.

이정후가 13년 전 올림픽의 금빛 신화를 재현하려면 일본은 반드시 넘어야 할 상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갑내기 투수 야마모토가 버티고 있다. 2년 전의 패배를 잊지 않고 설욕하려는 그의 바람은 이번 올림픽 무대에서 이뤄질 수 있을까. ‘바람의 손자’의 열도 원정은 이미 시작했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풍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로 건강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실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